

‘우리 미팅하자’에 ‘좋아요, 오빠?’

선정적인 포즈 담은 미팅제안엽서에 이대생 분노

지금 PC통신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이화여대생들과 서울대생들의 뜨거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명 ‘미팅엽서사건’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서울대 전기공학부 석사 1년생들이 이대 신문방송학과 앞으로 단체 미팅제안 엽서를 보내면서 시작됐다. 선정적인 포즈의 여성을 곁들인 미팅엽서의 내용은 이렇다.

‘Hi, Beautiful Girl! 우리 미팅하자.

여자는 이렇게 답한다.

‘좋아요, 오빠.’

이에 분개한 신방과 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 엽서를 공개, 이대생들의 목소리를 실었다.

“서울대 애들, 너희는 왜 그러니. 서울대면 다냐?” • “어떻게 최고 학부를 다닌다는 너희들이 이렇게 무식한 일을 벌일 수가 있니?” • “정말 잘났어. 엘리트면 엘리트답게 굴고 반

성 좀 해.” • “물론 소수겠지만 이런 저질성 폭력배들을 보면 거세하고 싶다.” • “서울대... 교수도 그러더니만, 우조교 사건이 일어날 만 해.”

이대생들의 ‘격분’에 비하면 서울대생들의 반응은 다소 침착하다.

“어느 집단이나 함량미달이 있듯 정신나간 서울대생이 한 일입니다. 소수를 가지고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됩니다.” • “우리학교 대학원이 좋긴 좋아요. 그딴 녀석도 다 받아주고 말이지요.”

통신에서 격론이 벌어지자 좀더 노골적인 내용도 올라왔다.

“왜들 그거 가지고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 내가 보기엔 별로 문제될 것이 없는데 말이야. 하여튼 여자들은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부풀리는 경향이 있어. 우리과 과song을 들었다 가는 큰일 나겠군.”

“배꽃계집큰배움터 girl의 분

노! 지들도 좋으면서 괜한 투정은...”

간단하게 이대생들의 목소리와 통신에 올라온 글들을 옮겨놓았지만 이번 사건을 단순히 ‘명문대생의 좀 튀 행동’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높다.

이대 여성위원회는 “비약이라고 하는 이도 있겠지만 이번 엽서사건의 핵심은 엽서를 보낸 한 남학생이 아니라 이 사회에 만연돼 있고 대중매체에 의해 조작되기까지 하는 포르노화된 여성비하의식에 있다”고 평가하고 “이화인의 분노를 서울대 학우들을 향해서만 외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성위원회는 또 “여성을 대상화하는 성의식 때문에 엽서를 보낸 그 학우도 그리고 수많은 남학생들도 왜 우리가 이런 문제로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

서 더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불균형적이고, 왜곡적인 성담론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사적인 공간이 아닌 공적인 공간으로 끄집어 내어 공적인 공간에서 몰상식한 성담론을 와해시키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신방과 학생들도 대자보를 통해 “이번 사건은 미팅제의 엽서라는 형식으로 우연히 표출된 대학가의 비뚤어진 성문화”라며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존재하고, 진보적이어야 할 대학에서조차 잠재해 일상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왜곡된 성문화에 대해 끊임없는 의심의 자세와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성인이라는 대학생들의 성담론이 ‘감정적인 대응’을 넘어 건강하게 마무리될 수 있을지 이를 바라보는 이들의 기대가 자못 크다.